

850년 전 앙코르 문명 3D 복원 시작

캄, 반테이 초마르 사원 복원...글로벌 헤리티지 펀드 지원

오랫동안 인간의 손길을 거부해 왔던 캄보디아의 고대 사원이 깨어나고 있다. 앙코르 왕국의 대표적인 사원 중 하나였던 반테이 초마르(Banteay Chhmar)에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고, 드물게 오지 여행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저개발국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글로벌 헤리티지 펀드(Global Heritage Fund)'의 후원을 받아 반테이 초마르 사원 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존 샌데이(John Sanday) 단장은 "자야바르만 7세(Jayavarman VII)가 지은 반테이 초마르는 앙코르 왕도로부터 북서쪽 165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금까지도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크메르 내전 당시 폴포트의 피난처였던 사원 일대에 대량의 지뢰가 설치되어 합부로 접근할 수 없었다. 다행히 2007년 독일의 후원으로 반테이 초마르 사원 안에 매설된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긴 했으나 사원 주변은 여전히 위험하다.

최근 반테이 초마르 사원에 대한 지표조사를 마친 샌데이 단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고고학자들은 3D 입체영상 촬영 장비를 동원해 사원 곳곳에 흩어진 사암 조각을 촬영하는 등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글로벌 헤리티지 펀드가 매년 이 작업에 2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한 샌데이 단장은 "3D 입체영상으로 촬영된 사암 조각에서 원래의 모습을 유추하는 힘든 과정이지만, 850여 년 전 앙코르 문명을 엿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사암 조각들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아가 찬란했던 문명을 한 눈에 조망할 때를 상상한다"는 그는 "그쯤 되면 반테이 초마르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반테이 초마르 사원에는 1177년 앙코르를 침략했던 찬파(지금의 베트남)와의 전투 장면, 자야바르만 7세의 아들이 적들과



오지였던 캄보디아 반테이 초마르 사원이 최근 글로벌 헤리티지 펀드의 후원으로 최근 복원을 시작했다. 사진은 반테이 초마르 벽에 조각된 관음보살상

발이는 전투 장면, 크메르 군대의 패배 장면 등이 사실적으로 대담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수많은 관음보살이 선명하게 조각돼 있는데, "관음보살의 가호를 세계에 전파하려 했던 앙코르 문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샌데이 단장은 설명했다.

앙코르 시대의 위대한 크메르 왕 자야바르만 7세는 찬파의 침략에서 나라를 해방

시킨 1181년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보복 침략을 통해서 찬파를 병합시킨 한편, 남쪽으로는 말레이반도의 크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위로는 버마의 살인 강까지 진출해 동남아시아에서 크메르 제국을 건설한 그는 국가를 쇠신하기 위해 종교를 불교로 삼고,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로 묘사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송광사 출가경험 토대 한국불교 알려

세계의 불교학자(2)

로버트 버스웰 美 UCLA 교수



2009년 5월, 동국대 불교학술원 초대 원장에 푸른 눈의 외국학자가 임명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美 UCLA 동아시아학과 로버트 버스웰 교수(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한국불교학의 세계적인 대가로 손꼽힌다. 동국대 산하 불교학술기관인 불교문화연구원, 전자불전연구소, 동국역경원, 종학연구소를 하나로 통합한 교학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버스웰 교수는 1986년 UCLA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임용됐고 1993년 UCLA에 한국학센터를 설립했다. 한국학센터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한국학 센터로 한국의 종교·문화 등을 가장 한국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1974년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출가했다. 당시 그는 '혜명'이란 법명을 받고 5년간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를 익혔다. 1985년 UCLA에서 '금강삼매경론'의 한국적 기원'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을 비롯해 지눌 스님 전집을 번역했다. 특히 버스웰 교수는 학부 때 영역해 출판한 <지눌 범어 선집>을 비롯해 줄곧 지눌의 선 등 한국불교 연구에 매진해 왔다. 그의 다양한 저술을 통해 한국불교가 서구 학계에 소개됐다. 버스웰 교수의 저작은 하나하나가 불교학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불교계에서는 버스웰 교수의 이런 공로를 높이 사 1994년에는 불이상을, 2008년에는 만해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인 '금강삼매경의 한국적 기원'은 종전까지 인도 혹은 중국에서 한국어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던 <금강삼매경>이 한국에서 쓰여졌다고 최초로 주장한 책이다.

버스웰 교수는 박사과정 때 원효 스님이 쓴 <금강삼매경> 해설서 <금강삼매경론>을 공부하던 중 <금강삼매경>을 거론한 중국 저자가 하나도 없고, 시기적으로도 한국에서 출판됐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있다는 점을 논증해 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연구 업적만큼이나 대외활동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한국학 전공자로는 최초로 중국학·일본학이 주도하는 미국 아시아학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학회장 등도 역임했다. 현재 미국 UCLA 아시아어언문화학과 교수, UCLA 불교학연구소장이 그의 대표적 직함이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현재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대장경·천태종 상월조사탄신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등 다수의 국내 학술행사에 참석했다.

버스웰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임명 당시 "외국인 학자로서 동국대와 외국 대학을 연결하는 역할이 나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여기고 있다. 해외 불교학자와 한국 내 학자의 교류에 힘쓰는 것이 내 역

불교학술원 초대 원장 역임
미국 최대 한국학센터 설립
"고려대장경 편찬은 1960년대 달탐사와 비견될 사건"

할이고, 그것이 한국불교학을 발전시킬 기회"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불교학의 최우선 과제는 외국에 한국학자의 업적을 알리는 것"이라며 "한국불교 주제의 국제학술행사 개최, 한국불교학자의 해외 학술행사 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10년 동국대 간학선 국제학술세미나 등의 밑거름이 됐다.

버스웰 교수는 고려대장경 편찬을 1960년대 미국의 달 탐사사업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그는 "서구에서는 일본이 1920년대 간행한 <신수대장경>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려 하고, 이는 간학선을 세계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송광사와 태국 등에서의 출가경험을 잊지 않으려 매일 요가와 참선을 한다. 강에 들어가기 전에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을 즐긴다.

김종명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박포리 교수(美 아리조나주립대), 리처드 맥브라이드 교수(美 워싱턴대) 등 다수의 제자를 배출했다.

조동성 기자 cetana@hyunbul.com

쓰촨·칭하이성 등지, 티베트 스님 3명 분신

중국의 티베트 통치 저항... '정치적 시위' 분신 확산 우려

올들어 중국의 티베트 통치정책에 저항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분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분신 사건의 진원지였던 쓰촨성 외에 칭하이성과 티베트자치구 등 티베트인 거주 지역 전역으로 '정치적 시위' 분신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력과 제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진은 중국 공안인 티베트 스님을 강제로 연행하는 모습

1월 8일 오전 칭하이성 다르헝 남모사원의 니야게 소납드루기우(42) 스님이 티베트인들의 자유를 요구하며 분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현지 주민과 티베트인권단체 등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숨진 스님은 현지인들 사이에 '린포체 소파(Sopa)'라고 불리며 존경받는 스님이다. 그는 숨지기 전 "티베트인들은 투지를 잃지 말아야 한다.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위해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유언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10일 이번 분신 사건을 보도했지만,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발각돼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앞선 6일에는 쓰촨성 아바현에서 22살 승려 등 2명의 승려가 분신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니아게의 분신은 지난해 3월 쓰촨성 아바현의 키르티 사원(Kirti monastery)에서

첫 승려 분신 사건이 일어난 이후 외부로 알려진 15번째 사례이며, 칭하이성에서의 분신은 이번이 처음이다. 티베트(시짱)자치구와 칭하이성, 쓰촨성 서부 등은 전통적으로 티베트의 영역이었으나 중국에 점령된 뒤 여러 행정구역으로 분할됐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 홍콩지부 조사관 니콜라스 베퀴린(Nicholas Bequelin)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저항의 한 형태로 분신을 선택하고 또 동조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의 압력과 제제가 컸을수록 지금의 극단적 선택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얀마 카친주 종교단체 전쟁난민 구호 나서

메유 씨 자르 불교사원 등 난민 1000명 새로 수용

미얀마 카친(Kachin) 주의 흐파칸트(Hpakant) 지역 종교단체들이 전쟁 피난민들에게 종교시설을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에 나서고 있다.

카친 주에서 2011년 6월 카친독립단체(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 이하 'KIO')와 미얀마 정규군 간의 전투가 시작되면서, 고향을 등진 피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올들어 메유 씨 자르 불교사원(Maw Si Zar Buddhist temple)은 470여 명, 로웅 흐강 카친 침례교회(Lawng Hkang Kachin Baptist Church)는 300여 명, 메유 씨 자르 카친 침례교회(Maw Si Za Kachin Baptist Church)는 120여 명 등 이미 피난민 1000여 명을 새로 수용했다.

"지난해 6월 카친 주에서 시작된 미얀마 정규군과의 전투로, 3만여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전한 KIO는 "피난민 대부분이 흐파칸트를 비롯해 남 야(Nam Ya)와 로웅 흐강(Lawng Hkang)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미얀마의 최북단에 있는 흐파칸트 지역을 피난처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KIO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카친 주의 와이잉메우(Waingmaw), 카와 양



카친독립단체 저항군과 미얀마 정규군 간의 전투로 피난에 나선 카친 난민들

(Kawa Yang) 남 만(Nam Mam) 핀 바우(Pin Baw) 메그웨이(Magway) 등지에 미얀마 정규군 400여 명이 증강·배치됐다"며 "미얀마 군부의 군사적 압력이 커진 만큼, 피난민의 수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O와 미얀마 정규군 간의 전투가 빈번해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권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여러 국제인권단체에서는 "KIO의 군사적 저항이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부터 미얀마 군인들이 카친 일대에서 저지른 절도 폭행 강간 학살 등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 내지: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본: 한정본 실제본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라니 / 춤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 구성: 한지날장
• 크기: 636mm×313mm

※ 여러종류의 사경책·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춤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가 20,000원(1권)

• 내지: 한지 108장 • 표지: 레저크지 읍셋 4"
• 제본: 한정본 실제본 • 크기: 435mm×300mm

사경지

반야심경 탐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 구성: 한지날장
• 크기: 636mm×313mm
• 종류: 한문,한글

쿠라다케 붓펜
입하

★사경용 금분액

바림등(8cm)

할인가 3,000원(50개 이상) 정가 2,000원

• 1BOX: 25개 • 등지름: 24cm
• 빨강, 보라, 노랑, 분홍, 진분홍, 흰색

공단등(8cm)

할인가 3,000원(50개 이상) 정가 2,000원

• 1BOX: 25개 • 등지름: 24cm
• 흰색, 노랑, 연분홍, 진분홍

광명전등

할인가 1,200원(100개 이상) 정가 2,000원

• 크기: 12×18.5cm
• 내지: 80메트지(64p)

삼베 삼재품이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가 1,000원

• 포장: 봉투 삽입

경면한지 불설삼재품이

할인가 1,000원(200개 이상) 정가 1,200원

• 포장: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품이

할인가 700원(200개 이상) 정가 900원

• 포장: 봉투 삽입

금강경탐다라니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정가 250원

• 포장: 봉투 삽입

[인간한지]금강경탐다라니

할인가 400원(450개 이상) 정가 600원

• 포장: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가 1000원

• 포장: 봉투 삽입

동진기획·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농협: 121068-56-042256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